

# 위대한 예술품은 모방

## 하지 않는다

FOR · U 성형외과 원장  
황경하



“위 대한 예술품은 모방하지 않는다.” 이 간단한 명제는 성형수술에도 해당되는 말이다.

언제부터인가 열병처럼 퍼지기 시작한 우리사회의 ‘드러내기 문화’, 화상채팅이 그렇고 TV의 짝짓기 프로가 그렇고, 자신을 보여주는 것 자체가 가치이고 의지의 표출인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젊은이는 아름다워지기 위한 노력에 주저함이 없다. 그러나 때로 조금은 서투름이 안타까울 때가 있다. 누구 누구의 눈처럼, 누구 누구의 코처럼 모방을 하는 어색함의 우를 범할 때가 그것이다. 이는 어울리지 않는 또 하나의 변종을 예고하기도 한다.

어느 연예인은 아주 얇은 쌍꺼풀이 너무나 자신에게 잘 어울려 단아하고 맑은 아름다움이 극대화되고 또 다른 연예인은 굵고 진한 쌍꺼풀이 잘 어울려 화려하고 섹시한 아름다움을 극대화 시킨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한 모방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자신의 얼굴에 맞는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색깔을 최대한 아름답게 극대화 시킬 수 있도록 드러내려고 할 때 어색하지 않은 숨어있던 나를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결코 모방하지 않은 나의 아름다움이 말이다. 쌍꺼풀 수술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로 절개법인데, 이것은 시원하고 뚜렷한 느낌을 준다. 별로 거칠 것 없는 자신감이 표현되고, 만약 조금 더 옆으로 뺀고 넓어 진다면 도발적이고 사이버틱한 분위기가 마져 느껴진다. 그렇지만 두 번째 방법인 매몰법은 그렇지 않다. 이는 좀더 부드럽고 자연스러운 느낌을 준다. 만약 옆 선이 더욱 좁아지고 내려온다면 어

리석을 만큼 순수함이 느껴지기도 한다. 코 수술은 남성의 경우 시원하고 길게, 곧게 뻗은 모습이 어울린다. 이는 직장 생활에서도 좀더 유망한 자신의 마인드를 가지고 밀어 부치는 추진력이 느껴진다. 여성의 코는 단순히 콧등만 올라간 직선의 모양보다 코 끝을 모아주고 자신의 연골이나 보형물을 이용한 코끝 성형

을 동반하여 옆모습이 버선발처럼 콧등은 약간 안으로 들어간다. 코 끝은 살짝 들려 있는 것이 아름답다. 이것은 매력적이고 세련된 느낌을 준다. 그러나 단순히 콧등이나 코끝만을 높이는 것보다 이마와 코, 입술과 턱으로 이어지는 선이 자연스럽게 부드럽워야 그 아름다움은 배가된다.

드러내기 문화의 큰 요소였던 TV는 오래 전부터 하나의 추세를 이루고 있었다. 그것은 보다 작은 얼굴형을 주도한 것이다. 거기에 일반인들은 또 한번의 몸살을 앓는다. 그러나 연예인의 모습이 매력적인 것은 단순히 얼굴이 작아서가 아니라 가로 세로 균형 잡힌 얼굴을 하고 있어서다. 수술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광대뼈 축소 또는 사각턱이나 주걱턱, 그리고 무턱을 교정할 수 있는 수술이 많이 보편화 되었다. 그러나 이 또한 단순히 기계적으로 얼굴을 줄이기 보다는 자신의 얼굴형이나 체형에 맞게 균형미를 이루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딱딱하고 거친 골격구조를 수술한 후에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미적감동을 담아낼 수 있다.

위대한 예술품은 모방하지 않는다. 이 말은 반드시 수술을 생각하는 모든 사람이 다시금 마음속에 생각해볼 문제다. 

상담문의 : 02-540-3787